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내가 모든 것 될수 있어야 자유 자재

내 몸속에 사는 중생들 한마음돼야 건강
타의형상 믿다보면 세세생생 노예 신세

불에가면 불덩이로
물에가면 물로
흙일땐 흙으로
영계선 영계로
하나 되어야
우주 다스릴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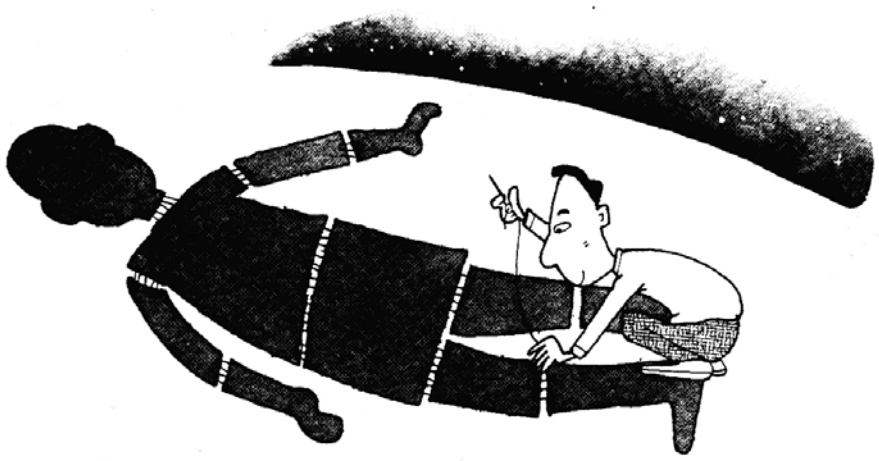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들과 한자리를 하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언제는 뭐 아니었습니까마는, 오늘 만나고 보니 더욱 반갑고 또 대구 합창단 처사님들을 보니 기쁩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속담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생긴 것도 역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졌기 때분에 생명체가 생기듯이 몸 하나가 나올려면 부모의 뜻과 내 영혼의 뜻과 또 형체가 형성되면 작용해줄수 있는 그 의식들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자기가 지은대로 다 합쳐서 이 세상에 형성돼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 지수화풍이 바탕이돼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할때도 마음을 떠나서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두뇌를 통해서 연구가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연구를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고, 또 현재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지만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지 않았더라면 고체니, 액체니, 기체니 하는 이런 말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또 레이저 광선이 개발되었지요? 물론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의 다른 개발품들이 많겠습니다만 그걸로써 방편을 한다해도 손색은 없을 겁니다. 레이저 광선을 지금 얼마나 유리하게 세상이 다 쓰고 있습니까? 병원, 비행기 또는 하늘 꼭대기로 쏘는 것, 라디오, 전화, TV할것없이 말입니다. 그것 뿐만이지 않겠지요? 일체가 그게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아픈 부위에 광선을 쬐야 하고 또 재는 것이든가, 쏘는 거라든가 다양하게 레이저광선은 어디나 쓰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로 돌아갔다가 올 수도 있고, 미래로 갔다 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업식이라도 녹일 수 있고, 윤회성 · 유전성 · 영계성 · 세균성 · 업보성, 이 모두를 녹일 수 있는 공부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만명이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내가 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만 명이다 하면 숫자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숫자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응신으로 나투어서 내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도 있거니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어져 찰나찰나 생활 속에서 나오는 모든 업보 자체를 녹일 수가 있는 것이며, 가깝든지 멀든지 간에 끌어다 볼려면 끌어다 보고, 놓고 볼려면 놓고 보고, 갖다 먹을수 있으면 갖다먹고, 갖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주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공부입니다. 날아가는 새나 비행기나 무엇이 다릅니까? 이건 엄청난 공부입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자유대권을 갖는데…, 이 우주 천지의 모든 대권의 소유자인데….

부처님께서도 근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만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요만큼 말씀하시고 이만큼 가진 자에게는 이만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을 그릇이 안되면 아무리 주어도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 유마힐 거사는 같이 도반이 되셨는데 그렇게 방편으로 보여주신 것은 어느 누구도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나가는 동물로서, 어떤 때 생각을 하면 모두가 하치않게 생각이 되면서도 그 생명 존엄성은 존재하고 있고, 모두가 아픔을 껴안고 먹고 먹히면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런 판국 속에서,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미생물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면, 인간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치열한 싸움입니까? 뼈저린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말입니다. 칼을 들어야만 싸움이 아닙니다. 좀게만 보지 마시고 한 번 넓게 펼쳐서 봐 보십시오. 어떠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장애자라 하면 육신의 장애자만 장애자라 하는데, 정신 장애자도 장애자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습니까? 멀쩡하게 살다가도 불구가 되기도 하구요. 누가 뒤에서 쫓아와서 쫓는게 아니라, 쫓아가 잡아 먹을려고 하면서 또 잡아 먹히는 이런 세상을 모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 사는게 쓸데없이 생각이 되기도 하구요. 어느때는 하늘을 쳐다보고 웃는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내 몸, 내 가정만 생각하고 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더 막막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기가 막혀서 그저 나같이 바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먹고 먹히는 항아리 속에서 쫓고 쫓기지는 않겠지요.

불법이다, 불교다 국한지으면서 사찰에 가고, 그저 부처님 믿는 걸로만 생각들 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당당하게 너부터 알라고 하셨습니다. "네 몸뚱이와 내 몸뚱이가 다르지 않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고, 생명도 다르지 않고, 마음도 다르지 않고, 몸도 다르지 않다. 다만 생각 차이가 있을 뿐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니, 가톨릭이니, 이슬람교니, 원불교니, 불교니 하고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전부 기복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앞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하게 막아놓고는 상대로만 믿고 가는지요. 상대를 믿고 가다보면 세세생생을 두고 노예밖에 더 되겠습니까? 종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종노릇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너는 땅을 짚고 일어나거라. 절름발이가 되지 말고, 눈뜬 장님이 되지 말고, 귀머거리가 되지 말아라. 이 우주 천하 모든 도리천은 너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유마힐 거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중들이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 걸 보면, 좌선을 했다 일어나면 끊어지지 않느냐고 충고도 했고, 내 몸이 나으려면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몸이 낫지 않겠느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모두 바깥으로 그 말씀만 받아들여서 바깥에 중생들을 다 거둬야 몸이 낫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몸속의 중생들, 그 생명의 의식들이 작용을 해서 병이 나아야 나도 낫는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현명합니까? 몸 속의 그 생명의 모습, 의식들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것과 같이 우리 오장육부의 생명들, 생명체는 우리 인간이 부산으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해줘야 한다구요. 내 마음 먹은 대로 같이 뭉쳐서 한마음을 내어 들일 건 들이고 낼 것은 내고 자유자재권을 형성시켜서 나가야 그것이 천백억 화신으로 화하지요. 그런 것을 모르고는 믿지 못합니다. 나의 그 모든 수십억의 의식들은 바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같이 해줄수 있는 그런 심력이 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식들은 의식들 대로 놀고, 즉 말하자면 위공장 따로 놀고, 장공장 따로 놀고, 방광공장 · 척추공장 · 심장공장 모두 따로 노는 겁니다. 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가 선생이라고 하듯, 모두 내가 제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앞에 어떠한 용도가 닥친다 하더라도 대처를 못합니다. 이 모두가 내 속의 이 마음이 잡을 것도 없고, 쥘 것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역력하게 빛깔이 있고 잡을 수 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집어 삼킬수 없고 자유자재 할 수 있는 대권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잡을 수 있다면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수많은 어떠한 여건에 따라서도, 내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할 때 레이저 광선이 쏴 들어가듯, 아니 그것보다도 더 빨리 한 찰나에 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식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자신들을 믿지 못해요.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우주 천지를 다스리겠습니까? 우주천지를 다스리는 것도 내가 높아서 다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17)

극락 · 지옥이 다 현실생활 속에 있다.

생활을 떠나서 불법을 따로 구하지 말라. 생활을 잃고 따로 그 어떤 것이 있다고 결코 믿지 말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곧 불법이니 내가 있는 것이 불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불교다. 생활을 불교식으로 바꾸는 것이 작은 일이라면 생활과 존재 그 자체가 불법 그것임을 깊이 깨닫는 것은 큰 일이다. 불교를 생활화하기보다 생활이 진리임을 알라.

불교를 믿든 안 믿든간에, 자세히 세상 이치를 살피고 고요히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명상하게 되면 점차 부처님 법에 가까워지게 마련이다. 인간 세계에는 없는 게 없다. 성현의 이치가 있는가 하면 중생의 이치가 있다. 그런데 왜 살펴보지 못하는가.

불법이란 현실의 법, 생활의 법이다. 부처님의 뜻에 진정으로 계합하기만 한다면 개개인의 생활은 말할 나위도 없고 국가와 사회의 당면 과제도 능히 타개할 수 있는 묘리가 나오게 된다. 생활을 떠나 종교가 있는 게 아니다. 평상의 생활을 떠나 도가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이 있기에 마음 있는 것을 알고, 마음이 있기에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평상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불법이라 한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가령 우리가 집을 짓고자 할 때 생각을 하니까 설계가 나오고 집이 올라가게 되듯이 일상 생활 중에서 생각을 하니까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마음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다. 내가 날 알아보기 위한 것이 곧 불교다.

범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지옥도 있고 이 세상에 범천도 있으며 천당도 있다. 세상살이를 가만히 보라.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갇히질 않나, 마음으로 죄를 지어 마음 지옥에서 살지를 않나, 환난 고통에 울부짖지를 않나, 그런 반면에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 기쁘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불법은 내가 행하고 살아가면서 한걸음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고로 부처님 법이 법당에만 있는게 아니라 안방에도 있고 부엌에고 있고 직장에도 있다. 대중이 살림하는 것이나 스님들이 중노릇 하는 것이나 공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불교란 기복이 고작이다.' 라고 인식한다면 첨단 세상을 사는 지식인이라 할 수 없고 자유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불교를 부정적, 은둔적인 종교로 보는 경향도 잘못된 것이다. 불교는 '일체 생명에 다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일체가 다 부처' 라는 대긍정, 대평등의 가르침이다. 시대가 바뀐 지금, 활발하고 긍정적인 불교의 참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풀 한 포기라도 불법 아닌 게 없다.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불법이다. 그러기에 이 세상 전부 어느 바닥이라도 법상 아닌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딛고 다니는 이 터전이 전부 한 법상이자 한 방통이자 여래의 집이다.

물 한 모금 마시고 밥 한술 떠 넣어도 더불어 먹고 더불어 감사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일부러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회향합니다' 하는 생각을 지어서 회향치 않아도, 깊은 감사와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행이 일체 중생, 일체 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회향인 것이다.

자신을 낳고 길러 주신 부모의 은혜를 작은 일이라고 무시한다면 어찌 부처님 법의 그 은혜로운 이치를 알 수 있겠는가.

아침 예불 쇳송에 '5종 대은 명심 불망' 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베푸는 이의 은혜, 좋은 벗의 은혜를 알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 그 다섯뿐이겠는가. 국민의 은혜, 땅의 은혜, 물의 은혜, 바람의 은혜, 불의 은혜 등 모두 감사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 하나 잘나서 독불장군이라 할 것이 없으니 둘 아닌 도리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면 이날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도를 구하려 다니며 애를 쓰다가 스러져 간 수백 수천의 역대 조사들이 기울인 노력, 부처님께서 49년 간 설하신 가르침이 모두 허무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세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해 왔다. 인간의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 만나기가 어렵고, 수행해서 보리과를 얻기란 더욱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작이 반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부처되는 길의 반을 이룬 셈이라 보아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복된 이 시점에서 우리를 여기 세워 주신 분이 누구이겠는가.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 조상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지녀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들의 차례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그분들을 더 잘 공경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참답게 수행하는 것이다. 몸을 받드는 효자가 있고 뜻을 받드는 효자가 있다.

협찬: 한마음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